



24일 광저우 아오타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근대5종 승마 경기에서 한국의 이춘현이 장애물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 고개 숙인 박주영 어깨 펴는 추신수

朴 축구 결승행 좌절·秋 야구 금메달… 병역특례 희비교차



회인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뛸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다른 종목에서도 메달 색깔에 따라 선수들의 희비가 교차했다.

남자 기계체조 도마에서 금빛 채지보 여주고 우승한 양학선(18·광주체고)과 바둑 혼성 복식에서 '얼짱 기사' 이슬아와 금메달을 합작한 박정환(17)도 일찌감치 병역 특례 수혜자가 됐다.

그러나 상무 입대를 앞둔 타구 남자 대표팀의 이정우(26·농성삼다수)는 중국에 막혀 단체전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고 아시아 정상의 자리에 서지 못한 다른 군 미필 선수들도 아쉬움을 안고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연합뉴스

## 광주체고 출신 '슈퍼맨' 이춘현

## 근대5종 단체 金·개인 銀



광주체육중·광주체육고 출신 이춘현(30·한국토지 주택공사·사진)이 이끄는 한국 근대5종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춘현은 개인전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대표팀은 24일(한국시간) 중국 광저우 아오타 근대5종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근대5종 경기 남자 단체전에서 이춘현과 김인홍(28·한국토지주택공사), 김기현(26·한국체육부대), 정현호(22·서원대)가 출전해 총점 2만2232점을으로 중국(2만2082점), 일본(2만1656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춘현은 184cm, 75kg의 이상적인 체격에 수영으로 다져진 체력, 집중력과 뻔한 두뇌 회전을 겸비해 한국 근대 5종의 간판으로 불려왔다. 광주체육중 입학 당시 수영을 했던 이춘현은 2학년 때 2종(수영, 육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슈퍼맨'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은 개인전에서는 어렵게 3회 연속 우승을 놓쳤다.

단체전과 함께 개인전도 우승을 노렸지만 마지막 복합 경기에서 차오중룽(중국)에게 금메달을 빼앗겼다.

간판선수인 이춘현이 5704점으로 차오중룽(5678점)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고, 김인홍은 5628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인홍은 복합경기에서 선전을 펼치면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근대5종은 한 선수가 하루에 사격·펜싱-

수영·승마·육상 등 5종목 경기를 차례로 치러 순위를 가려왔으나 지난해 경기 방식을 손질해서 달리기를 하며 총을 쏘는 '복합경기(Combined Event)' 방식을 도입했다. 펜싱과 수영, 승마 경기 후 세 종목 총점 순으로 핸디캡 스트트 방식을 적용해 복합경기 틀을 치러 우승자를 가린다.

한국은 출전 선수 네 명의 성적을 합산하는 단체전에서 펜싱(3692점) 1위, 수영(5212점) 2위, 승마 3위(4412점)에 오르며 세 종목 합산 순위에서 전체 1위로 마지막 복합경기에서 나섰다. 대표팀은 복합경기에서도 가장 많은 8916점을 보태면서 중국의 추격을 204점 차로 뿌리치고 아시아 정상을 확정했다.

이춘현은 184cm, 75kg의 이상적인 체격에 수영으로 다져진 체력, 집중력과 뻔한 두뇌 회전을 겸비해 한국 근대 5종의 간판으로 불려왔다. 광주체육중 입학 당시 수영을 했던 이춘현은 2학년 때 2종(수영, 육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슈퍼맨'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은 개인전에서는 어렵게 3회 연속 우승을 놓쳤다.

단체전과 함께 개인전도 우승을 노렸지만 마지막 복합 경기에서 차오중룽(중국)에게 금메달을 빼앗겼다.

간판선수인 이춘현이 5704점으로 차오중룽(5678점)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고, 김인홍은 5628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인홍은 복합경기에서 선전을 펼치면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근대5종은 한 선수가 하루에 사격·펜싱-

수영·승마·육상 등 5종목 경기를 차례로 치러 순위를 가려왔으나 지난해 경기 방식을 손질해서 달리기를 하며 총을 쏘는 '복합경기(Combined Event)' 방식을 도입했다. 펜싱과 수영, 승마 경기 후 세 종목 총점 순으로 핸디캡 스트트 방식을 적용해 복합경기 틀을 치러 우승자를 가린다.

한국은 출전 선수 네 명의 성적을 합산하는 단체전에서 펜싱(3692점) 1위, 수영(5212점) 2위, 승마 3위(4412점)에 오르며 세 종목 합산 순위에서 전체 1위로 마지막 복합경기에서 나섰다. 대표팀은 복합경기에서도 가장 많은 8916점을 보태면서 중국의 추격을 204점 차로 뿌리치고 아시아 정상을 확정했다.

이춘현은 184cm, 75kg의 이상적인 체격에 수영으로 다져진 체력, 집중력과 뻔한 두뇌 회전을 겸비해 한국 근대 5종의 간판으로 불려왔다. 광주체육중 입학 당시 수영을 했던 이춘현은 2학년 때 2종(수영, 육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슈퍼맨'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은 개인전에서는 어렵게 3회 연속 우승을 놓쳤다.

단체전과 함께 개인전도 우승을 노렸지만 마지막 복합 경기에서 차오중룽(중국)에게 금메달을 빼앗겼다.

간판선수인 이춘현이 5704점으로 차오중룽(5678점)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고, 김인홍은 5628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인홍은 복합경기에서 선전을 펼치면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근대5종은 한 선수가 하루에 사격·펜싱-

## 인라인롤러 우효숙 '눈물의 금'

## "하늘나라 할머니께 바칠게요"

'할머니, 제가 오늘 꼭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국 인라인롤러의 간판 우효숙(24·청주시청)은 24일 중국 광저우 벨로드롬 인라인롤러 경기장에서 열린 제16회 광저우 우아시안게임 인라인롤러 여자 EP 1만m 결선 출발선에서 바닥에 무언가를 손으로 써내려갔다. 31점으로 20점에 그친 2위 귀단(중국)을 여유 있게 따돌린 우효숙은 경기가 끝난 뒤 "많이 편찮으신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도와달라고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우효숙이 그렇게 그리워 하던 할머니(고 이정순씨)는 장한 손녀의 '금빛 짙주'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정주기의료원에서 요양 중이던 할머니는 19일 영양 손녀를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먼저 떠났기 때문이다.

강대식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사실 지난 주에 (우)효숙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부모님과 상의해 알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 이후 결국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은 우효숙은 시상식을 기다리는 내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너무 슬퍼요."

아까 금메달을 땄을 때는 할머니께 금메달을 걸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기뻤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지..."

우효숙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일하느라 주로 할머니 손에 캐다.

/연합뉴스

## "높이뛰기 재형이와 결혼할래요"



## 멀리뛰기 정순옥 '환희 금'

## "높이뛰기 재형이와 결혼할래요"

시청은 태극기를 휘감고 환하게 웃었다. 정순옥은 "오늘 선수들의 기록이 전반적으로 저조했는데 1등을 차지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지난 9월 전국대학대항대회에 번외 선수로 뛴 기록(6m71)을 IAAF에 신고하지 않고 상대선수들을 자극하지 않은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알렸다면 정순옥은 이날 출전 선수 중 시즌 기록에서는 2위에 올라 있었을 것이다. 정순옥이 금빛 도약을 펼치는 사이 경쟁자들은 개인 기록에 한참 모자란 기록에 그치면서 웅파언으로 가는 길을 쉽게 터졌다.

4년 전 도하 대회에서 5위에 머물렀던 정순옥은 이번 대회에서는 기필코 메달을 따고자 준비에 상당한 공을 들였고 마지막에는 랜들 헌팅턴 코치와 더불어 비행 및 쪽 동작을 가다듬는 데 집중했다.

정순옥은 마지막으로 결혼을 약속한 높이뛰기 선수 차재형(문경시청)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지재형 사랑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해 폭소를 자아냈다.

/연합뉴스

## 정정공고

## 수의성 좋은 원룸 금매

부지 11월 23일자 계약된 주식회사 경화건설

자본금3000고 중 회사명 "주식회사 경화건설"

를 "주식회사 경화건설"로 바로 접습니다.

2010년 11월 25일

주식회사 경화건설

대표이사 최경원

## 합병 공고

(주)전원건설 "갑"과 (주)동해건설 "을"은 서기 2010년 11월 24일 개화된 각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갑"이

주주총회에서 "을"을 수용함에 그 결과로,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공고는 개별 입찰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제3자는 관계회사에 이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을"의 주식을 소지한 주

주들은 본 공고와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권을

"을"에게 예약에 출판해 주시기 바리와 이에 공고화.

2010년 11월 25일

"갑" 상호 : (주)전원건설

대표이사 : 유한수

소재지 : 천주복도 고장면 상현리 37번지

전화번호 : 0408-9408-9247-1001

전자우편 : hanil@hanil.co.kr

주식회사 경화건설

대표이사 : 차재형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읍 진해면 1000-1000

전화번호 : 055-544-8845

전자우편 : jingseung@korea.com

주식회사 경화건설

대표이사 : 최경원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읍 진해면 1000-1000

전화번호 : 055-544-8845

전자우편 : jingseung@korea.com

주식회사 경화건설

대표이사 : 최경원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읍 진해면 1000-1000

전화번호 : 055-544-8845

전자우편 : jingseung@korea.com

주식회사 경화건설

대표이사 : 최경원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읍 진해면 1000-1000

전화번호 : 055-544-8845

전자우편 : jingseung@korea.com

주식회사 경화건설

대표이사 : 최경원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읍 진해면 1000-1000

전화번호 : 055-544-8845

전자우편 : jingseung@korea.com

주식회사 경화건설

대표이사 : 최경원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읍 진해면 1000-1000

전화번호 : 055-544-8845

전자우편 : jingseung@korea.com

주식회사 경화건설

대표이사 : 최경원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읍 진해면 1000-1000

전화번호 : 055-544-8845

전자우편 : jingseung@korea.com